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7,621.5	20.9	134,500	-1.8	-7.2	-6.3	-2.8	31.6	93.7	0.7	0.7	1.9	0.7
현대로보티스	6,115.6	19.4	375,500	-1.8	-2.6	-12.4	N/A	3.5	5.1	0.8	0.7	21.8	14.1
현대엘렉트릭	1,137.9	7.3	111,500	-1.3	-3.0	-4.4	N/A	13.6	10.6	1.0	0.9	7.6	9.3
현대건설기계	1,600.0	10.5	162,000	-4.4	-5.3	-9.2	N/A	13.3	10.3	1.3	1.1	9.6	11.7
삼성중공업	2,808.0	17.7	7,200	-0.1	-40.0	-34.2	-22.2	30.0	454	0.4	0.4	1.5	1.0
대우조선해양	1,554.4	3.3	14,800	-2.6	-16.6	N/A	-67.0	0.9	8.3	0.4	0.4	63.6	4.9
현대미포조선	1,868.0	13.0	93,400	0.3	-1.1	-5.2	39.0	3.9	202	0.7	0.7	20.9	3.6
한진중공업	350.0	4.5	3,300	0.8	-9.5	-14.5	-1.9	-2.3	664	0.5	0.5	-18.7	0.7
현대엘리베이터	1,330.2	33.7	54,000	0.0	0.2	8.3	-5.9	10.0	95	1.5	1.3	15.9	14.6
두산밥캣	3,563.9	27.8	35,550	1.9	4.7	-4.7	-0.8	16.4	13.1	1.0	1.0	63	7.4
현대로템	1,619.3	28.2	19,050	0.3	1.6	9.5	5.0	44.0	246	1.1	1.1	2.6	4.5
하이록코리아	304.3	47.4	22,350	-1.5	-13.5	6.4	5.9	11.1	10.1	0.9	0.9	8.7	8.8
성광밴드	286.0	13.7	10,000	0.0	2.6	8.5	12.9	-34.8	884.0	0.6	0.6	-1.8	0.1
태광	306.1	16.5	11,550	-2.1	10.5	25.5	39.3	-24.6	69.0	0.7	0.7	-2.9	1.0
두산중공업	1,687.4	7.2	15,850	-0.9	0.3	-5.9	-41.7	-48.7	107	0.6	0.5	-12	4.7
두산인프라코어	1,811.7	10.8	8,710	-1.0	-1.6	0.6	-1.2	9.1	7.9	0.9	0.8	9.8	10.5
두산엔진	266.2	3.1	3,830	-4.3	-24.5	-7.7	16.6	25.8	374	0.5	0.5	1.9	1.3
한국항공우주산업	4,576.5	17.4	46,950	-1.4	-9.7	7.9	-29.9	-69.4	26.9	3.5	3.2	-4.7	12.1
한화테크윈	1,854.2	18.7	35,250	1.0	-1.7	-1.7	-18.9	28.8	18.0	0.8	0.8	27	4.3
LIG넥스원	1,243.0	11.5	56,500	-0.7	-5.2	-21.2	-29.8	26.8	14.3	1.9	1.7	7.3	12.6
태웅	367.1	1.5	18,350	1.9	5.8	7.6	-18.3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129.5	3.0	4,800	-1.0	-1.1	-4.0	-165	N/A	N/A	N/A	N/A	N/A	N/A
한국기본	229.0	15.4	5,210	-0.2	-8.9	-10.6	-13.9	N/A	N/A	N/A	N/A	N/A	N/A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닻 올린 해양진흥...3조 투입해 현대상선 공통화 나선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초기 자본금 3.1조원으로 출범할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현대상선은 2만TEU급 9척, 1.3만TEU급 11척 등 총 20척 규모의 발주를 조율 중으로 알려짐.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예상되며 내년 초부터 발주할 예정임. (서울경제)

HHIC Subic set for VLGC breakthrough with Exmar order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수빅 조선소가 Exmar에서 VLGC 2척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현재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중국 Jiangnan 조선소가 경쟁 중이라고 알려짐. 선박은 스크러버 정착과 Dual-Fuel 옵션으로 건조되며 척당 약 7,000만달러, 인도는 2020년 1분기 예정됨. (TradeWinds)

대우조선, 임단협 잠정 합의...고용세습조항 삭제. 임금 동결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알려짐. 그러나 대우조선 임단협 관련 노사 합의는 22일 조합원 찬반투표가 남아있어 아직 최종 타결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임. 최근 발생한 노사갈등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음. (한국경제)

Euronav announces Gener8 takeover

탱커선사 Euronav은 동종업종의 Gener8 Maritime 인수를 발표함. 여러 선사가 Gener8을 인수하기 원했으나 결국 Euronav와 75:25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알려짐. Gener8 Maritime은 30척의 탱커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치는 총 16.6억 달러에 달함. 그 중 VLCC는 21척으로, 선대 평균 선령은 1년임. (TradeWinds)

Pistioli returns to suezmaxes with newbuild order at Hyundai

그리스 선주 Pistioli는 현대중공업에 Suezmax급 VLCC 2+2척을 주문하며, 8년만에 Suezmax 탱커시장에 돌아왔다고 알려짐. VLCC는 현대 삼호중공업에서 건조될 가능성이 높고, 선가는 척당 6,000만달러를 약간 하회한다고 알려짐. Pistioli는 지난 11월 현대미포조선에 MR탱커 11척을 계약했음. (TradeWinds)

Northern buys Bollsta Dolphin

John Fredriksen의 Northern Drilling은 현대중공업에서 Semi-sub 'Bollsta Dolphin'을 4억달러에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했다고 알려짐. Fred Olsen이 발주를 취소했던 Semi-sub의 주문가격은 7.5억달러임. 이번 옵션에 서 2억달러를 인도 전 지불하고, 나머지는 인도 후 지불할 예정임. (Upstream)

Yang Ming scouts yards over \$1.35bn newbuilds

컨테이너선사 Yang Ming은 1만TEU급 컨테이너선 10척과 2,400TEU급 14척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짐. 현재 대만의 CSBC, 한국의 주요 조선업체, 일본 Imabari, JMU 조선소와 협상 중으로 알려짐. 총 규모는 약 13.5억달러로 예상되며, 1만TEU는 9,500만달러, 2,400TEU는 3,000만달러로 알려짐. (TradeWinds)

Vessels may slow down in 2020 due to IMO regs

JP Morgan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적용되는 IMO의 환경규제에, 선주들이 스크러버 대신 비싼 저유황유를 사용해 선박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주장함. 많은 선사가 저비용 항로를 선택해 속도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거임. 또 Maersk를 뒤이어 60~80% 선주들이 저유황유를 선택할 전망임. (TradeWinds)